

미국 ISM 제조업지수, 경기 둔화 반영

2008.12.02

정홍식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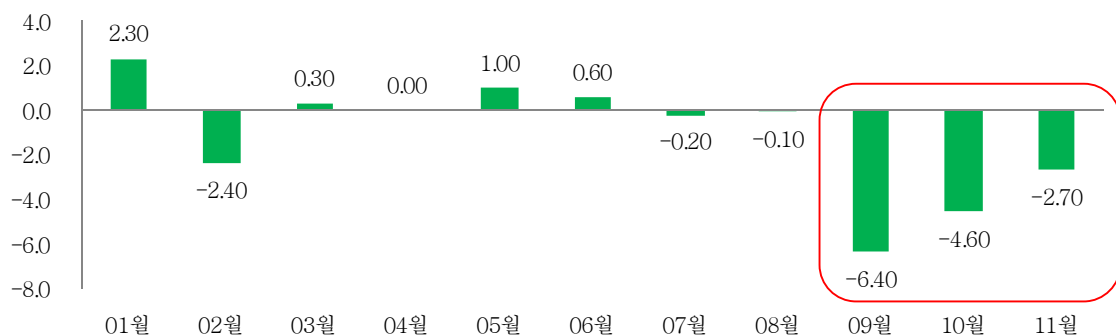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The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에서는 미국내 20개 업종의 300개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향후 경기 개선 여부를 조사하여 매달 ISM 제조업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ISM 제조업지수는 통상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제조업 경기확장을 의미하고, 50 미만이면 제조업 경기위축을 의미한다.

전일(12월1일) ISM에서는 시장컨센서스(36.5)보다 낮은 36.2를 기록한 제조업지수를 발표하였다. 이는 전월대비 2.7p 하락한 수치로서 지난 1982년 이후 2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결국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 금융시장 위기가 실물경기로 확산되어 경기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현재의 경제상황이 본격적인 경기침체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미경제조사국(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도 73개월간 지속된 경기확장 국면을 멈추고 작년 12월 경기침체국면에 진입하였다고 공식발표하였다.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전일 PMI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전월대비 5.8p 하락한 38.8을 기록하며 2005년 집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제조업 경기 불황이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지역에서 제조업 체감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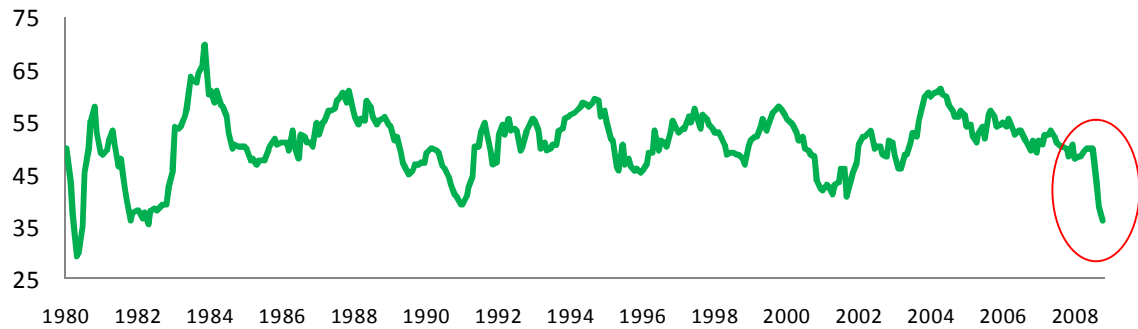
그러나 ISM 제조업지수가 최근 5개월 연속 하락하고는 있으나, 하락률이 지난 9월 -12.83%(-6.4p), 10월 -10.57%(-4.6p)를 기록한 것에 반해 11월 ISM 제조업지수 하락률이 -6.94%(-2.7p)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제조업의 급락국면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1] 2008년 ISM 제조업지수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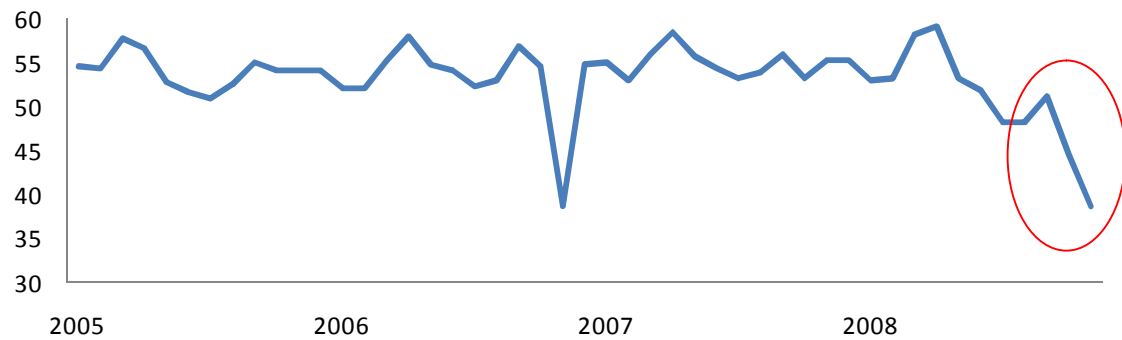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그림2] 미국 ISM 제조업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그림3] 중국 PMI 추이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매수 추천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